

同窓會 指標



- 參與
  - 協力
  - 榮光

-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秀愚  
錘鍾  
聖主  
韓李  
人行  
人編  
人印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9-8222, 5-717-8526, 7

- 銀行지로番号 : 7500875
  - 對賛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 3천 5백여 同門, 母校 기리며 가을 만끽



**家族동반 크게 늘어** : 천명한 가을 해 삼아래 紅葉으로 꽃게 물들여지 雪岳山은 모처럼 서옹大人的 침목과 결속을 다지는 우렁찬 학성으로 연기가 가득했다.

우리 서울大 同窓 母校의 開校紀念日이 들어 있 는 10월 下旬, 예년과 같이 冠岳 山 너머 母校 樹木園으로 가을登 山을 했다. 70, 80代로부터 20代까 지 2, 3代에 걸친 男女老少 3천5백명이 구름같이 모여 이를 래는 丹楓속에 하루의 清遊를 마 음껏 즐겼다.

安養쪽으로 해서 오는 同窓 가족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雪西 母校 正門앞에 모여 登山을 시작했 니 새파란 同門보다는 中年 이상 에 들이선 동문들이 많았던 것은 나 이들수록 어버이 생각을 하듯, 늙 은이 切切해지기 때문이라. 서울 大 마크로 세워진 正門을 중심으로

## 丹楓을 詠歌하며

이련 생각에 잠기는 동안우  
리의 발걸음은 어느덧 고개를 넘  
고 넓데데한 마른 개울을 거쳐 언  
제가 보아도 아득한 우리의 樹木  
園에 높고 空氣도 높았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  
고 자랑하는 소나무 밟은데, 사철 푸르름  
을 빨갛게 무르익은 사이에 노랗  
고 사람하니, 마치도 雪岳山과 五  
臺山. 內藏山의 달빛들이 우중우줄  
한데 모여들어 오늘 우리를 흐드  
려지게 歡迎하는 듯하다.

丹楓은 가을의 象徵이다. 元에 싹  
터 뿐 피고 亭에 짙은 緑陰으로  
뒤덮였던 山野가 利에 열매 맺고  
丹楓이 드니, 단풍은 所任을 다하  
고 萬象을 下直하는 마지막을 장  
식하는 불는 情念인가 한다.  
세계에 丹楓 고장도 많겠지만 우  
리처럼 색깔이 鮮明한 것은 드물다.  
하겠다. 노란 것은 샛노랑고,  
붉은 것은 새빨개, 치치하고 어중  
됨이 없는 것이 특색이다. 단풍은  
공기가 맑을수록 더 산뜻한가 보

로 그득 모인 이들 농민들이었어.  
느 時代에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엘리트들로서 이 門을  
통과했었고, 그 버젓함과 훌륭함,  
당당함으로 시종 貞微하면서 여기  
이렇게 즐기차게 모였으니, 우리들  
의 자랑이 極에 달한 수밖에 예  
년에도 그랬지? 왜 올해는 특별히 날  
씨도 맑고 따뜻한 폐다가 더 많이  
모여들어 더없는 盛況을 이루었어  
니 말이다.



하여 1919년 3월에는 東京本校로부터 「東洋協會」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로 동년 6월에는 「京華專門學校」로 독립되었고, 그 이름이 1920년 5월에는 「京城高等商業學校」로 「京城高等商業學校」로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崇仁洞校舎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京城高等商業學校」라고 일컬게 되었다.

그후 1922년 3월 13일 재단법인 「京城商業學校」가 官立으로 따라 같은 해 4월 1일 「朝鮮總督府令 第3호로써京城高等商業學校規程이 發布 되고, 교명은 「京城高等商業學校」라고 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성고등상업학교의 校舎는 1939년 11월 25일 鐘岩洞에 신축중이었던 재단법인 友石學園 건물을 사용하여 그 곳이로 이전하였다. 그대신舊 校舎의 건물 및 대지는 조선총독부 稅務監督로 되었고, 그 대신에 「京城高等商業學校」로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로 「京城高等商業學校」로 독립되었고, 그 이름이 「京城高等商業學校」로 「京城高等商業學校」로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 崇仁洞校舎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京城高等商業學校」라고 일컬게 되었다.

高等經濟大學에 있다. 그리고 상과 대학은 京城高等商業學校(高商으로 略稱함)가 그 전신이다. 오늘날 경영대학에는 經營科學와 附設經營研究所, 附設財務關係研究所 등이 있다. 이제 그간의 경영대학 창설에서 이르기까지의 뿌리를 찾기를 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경영대학의 뿌리는 이들이다. 말하자면 上帝의 前身은 1907년 在日本 東洋協會에서 설립한 東洋協會專門學校(東洋協會専門學校)이다. 일본에 있는 拓殖大學(拓殖大學)의 전신임. 이 학교를 1915년 8월에 발족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朝鮮語科 제3학년을 京城分校에 파견하여 1년간 朝鮮開發에 헌신하였던 그 후 1915년 8월에 이르러 校名을 「東洋協會専門學校」로改명하였다. 이어서 1918년 4월에는 東洋協會専門學校로改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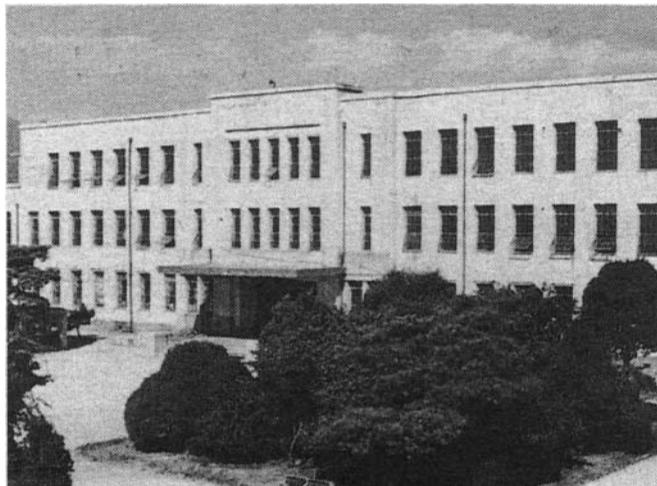
서울大學校의 뿌리

韓

基彥

46 韓文

# 1907년 京城高商으로 첫 출범 1976년 最高經營者課程 신설



◇ 경영대학의 뿌리가 된 商科大學 캠퍼스(종암동)

商大 발전적 解体 '75년 冠岳캠퍼스서 發足  
呂相洛교수 初代學長망아 學風造成에 이바지

과학적 經營技法등 전문지식 보급에 注力

# 과학적 經營技術을 전문지역 도입에注重



# 祝祭의 자리 빛내다

## 金品協贊同門

서울大人的矜持와 보람을家族과 함께興겹게나는 일요일한것. 이날은登山大會라기보다동물과親知들이함께어울려즐길수있었다. 이祝祭의자리를빛내기위해金品으로協贊해준同門의나들이잔자에참가한3천5백여가족들에겐오랜동안인상적인날로남아있을것이다. 도시락·包围력·酒飲料등을한아름씩안고행복해하던동물들의表情을잇출수있었다.

河永基	朴浚圭	金昌圭	尹德善	崔主鎬	
48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第一生命保險㈱ 진주원 10박스	48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民主正義黨 代表委員 一金 40만원	4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林產業石油化學 副會長 一金 25만원	42년 醫大卒 本會 理事 漢江聖心病院 一金 25만원	39년 養大卒·本會會長 宇成그룹 會長 一金 100만원 宇成洋服地 10벌	
朴永夏	金鍾泌	趙淳	金相廈	金相烈	
50년 醫大卒 本會 理事 乙支病院 理事長 一金 10만원	50년 師大 新民主共和黨 一金 40만원	49년 商大卒 副總理겸 經濟企劃院 長官 一金 25만원	49년 文理大卒 本會副會長·大韓商議 株三養社 會長 一金 35만원	48년 藥大卒 本會 理事 健豐製藥㈱ 會長 一金 25만원	
洪性澈	金在淳	金建	金泳三	具平會	
52년 商大卒 青瓦台 秘書室長 一金 25만원	52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國會議長 一金 40만원	52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韓國銀行 總裁 一金 25만원	51년 文理大卒 統一民主黨 總裁 一金 40만원	51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麗基金成商社㈱ 一金 35만원	
金善弘	李光壽	成樂正	崔丙億	崔鍾賢	李春林
55년 工大卒 本會 副會長 起亞產業㈱ 社長 自轉車 3台	54년 商大卒 本會 理事 서울信託銀行長 一金 25만원	54년 工大卒 本會 理事 京仁에너지㈱ 社長 一金 25만원	53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大韓生命保險㈱ 一金 25만원	53년 農大 本會 理事 株鮮京 會長 一金 35만원	52년 醫大卒 本會 副會長 東亞製藥㈱ 會長 코카스 2,000캔
崔浩中	林鍾琰	柳仁永	金貞植	田永秀	朴晟容
56년 文理大卒 外務部長官 一金 25만원	56년 工大卒 本會 理事 燦金星通信 社長 一金 25만원	56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韓電線㈱ 社長 一金 25만원	56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德電子㈱ 社長 一金 25만원	55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住宅銀行長 一金 25만원	55년 文理大 本會 理事 錦湖 會長 노트 200권
金英錫	高炳佑	姜晉佑	閔丙晙	郭厚燮	黃英奎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朝興銀行長 一金 25만원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雙龍投資證券 一金 25만원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株吳大億우유 會長 롯데에이틴 500個	56년 師大卒 斗山食品 社長 코카콜라 1,000캔	56년 師大卒 本會 理事 롯데캐논 社長 一金 25만원	56년 法大卒 本會 理事 太平洋化學㈱ 社長 화장품 10세트
宋世昌	趙南煜	李洪九	吳在德	金昌權	南應祐
57년 商大卒 本會 理事 三星航空 社長 삼성카메라 3台	57년 法大卒 本會 副會長 三扶土建社長·國會議員 一金 35만원	57년 法大 本會 理事 國土統一院長官 一金 25만원	57년 法大卒 本會 理事 韓國火薬그룹 一金 25만원	57년 文理大卒 交通部長官 一金 25만원	56년 大學院卒 本會 理事 韓國貿易協會 會長 一金 25만원
崔激雄	張翼龍	李景勲	金延洙	李憲祖	李昌埈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鏡月酒造㈱ 會長 一金 25만원	58년 工大卒·本會 ㈱西光 會長 副會長 라고스페T셔츠 10점 쥬리아화장품 등 50점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宇重工業㈱ 社長 一金 25만원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韓國長期信用銀行長 一金 25만원	57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金星社 社長 一金 25만원	57년 商大卒 ㈱一和 副社長 맥풀 1,000캔
黃昌基	金採謙	崔洛賢	張世綱	李康煥	崔永喆
58년 商大卒 本會 理事 韓國輸出入銀行長 一金 25만원	58년 商大卒 本會 理事 ㈱雙龍洋灰 社長 一金 25만원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啓星製紙㈱ 社長 一金 25만원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漢陽投資金融㈱ 社長 一金 25만원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大韓教育保險㈱ 副會長 一金 25만원	58년 文理大卒 文理大同窓會長 勞動部長官 一金 20만원
安秉華					



# 國政與政議

内外의 눈

초대석 5



吉 昇 欽  
(64년 文理大卒·母校교수)

# 政非理 國監서

그런대로

피혜처

與野정치지도자 私利버리고 國益우선토록

民生 문제 · 5 共청산 국민期待值에 副應할지 注目

18% 팽창豫算 철저심의로 책임정치 펼쳐야

개하겠다고 합의하고 그를 公審한다는 데, 民족은 이와 같은 野33에 「共助」에 분제하여 「民씨 政界退進」을 부르고 있다. 한국의 정치적 전의 10. 26. 전의 한현상을 再現하고 있다.

새 名簿 發刊이 임박했습니다. 변경된 職場(職位) 및 住所를 이달말까지 보내 주시면 名簿에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트리아 빙에서 개막된 제33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총회에서 한 국과학자단 이사장鄭根謙 박사(59년 文理大 졸업)가 단장임치로의 장에 선출되어 우리나라 과학외교의 패거로 밟아 놓았고 있다. 한국인이 IAEA와 같이 중요한 유엔사하 국제기구 총회의장에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다.

鄭동준은 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나개 인생으로 더 활나위 없 보다는 큰 영광이지만 우리 나라가 세계과학기술사회에서 그 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그 소감을 털어 놓는다. IAEA는 1973년에 13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 는 정부차원의 유엔기구로서 우리나라 57년에 가입했다. 기구는 原子力의 평화적 이용증진, 핵무기제작, 핵전력을 위한 한국 과학기술발전을

門을  
찾아서



때에 교에 대학입학 결정고시  
首先合宿, 이들에도 文理大(물리학과)  
次席合宿, 59년도 行政大學院(一회)  
首先席合宿했다.  
物理學을 전공하고 行政大學院에 입학한 것이다.  
개원하면서 첫 院長이 된 申泰煥 박사(前母校 총장)의 권유에 의해 1년을 수학

나라의 대학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기초연구  
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만,一般基礎研究目的  
为基础研究(그론연구)、  
新進研究(新生교수에  
연구를 지원해 외연을 확장

# 世界的으로 이름난 核物理學者 24세때 美大學서 博士學位 취득

● : 3 : 韩国 『국』 『국』 : 1부 국 韩国 韩国 『국』

# 國際原子力기구 韓國人議長

鄭根謨 박사

위한 국제교류협회를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議長은 매년 9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주재하며 임기는 다음과 함께 1년간의 정기총회뿐 아니라 임시전까지의 1년간이다.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놀리정연하게 말하는 그는 수훈난 이어가는 鄭동문은 물론으로 수재이자 일련진 학者이다. 세계 학물리 1학년

시키는 프로그램) 가 그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의회적인 사안을 후援구집단(後援團), 즉 基礎科學研究센터(S.I.C.)·工學研究센터(E.I.C.)를 선정(選定, 長期(10년 단위)의 으로 5~10년씩 투입(投入), 21세기 속의 産業로 기울 계획(計劃)이라고 밝혔다.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同窓會館 관아호  
시키는 프로그램)가  
것입니다』 그는 우  
의 회기적인 사업을  
수연구집단, 즉 基礎  
학센터 (S.I.C.) —  
研究センター (E.I.C.)

▲ 麥鳳國  
(52岁) 農  
大卒·母校  
農大教授·  
本會理事)  
= 한국농협  
과학협회장으로서  
농촌진흥청 대장으로서 「한국  
농업과 농설의  
이란」 주제로  
설포지도를 개최했다.  
회장으로서  
후 7시 30분  
이틀째에서  
기연주회를  
개최한다.

57년  
理大卒  
益文  
大教授  
Park Chung-hee

서초동  
사회복지  
협회  
의장  
가진  
藥師會  
議院  
院長  
銀里斯  
社長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일우

총리  
주 희에서  
마  
KBS  
열린  
주 회에서  
마

宋吉憲  
卒(59년)  
新韓銀商  
命保險社  
常任監事  
에서 사  
洪性龍  
藥業  
卒·洪藥  
= 툴룸  
씨온글  
호모  
[한국언론]

▲ **李弼坤**  
（65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아노를 맡아 연주회  
「셀러賞」을 수상한  
현정부로부터  
大卒·三月  
本會理事  
物產社長

▲徐柱(64년)  
本會理事  
電氣社長  
大卒·三  
우승회가  
VE전국대회에  
참여로써  
▲金亨圭(64년)  
大卒·漢  
大學教授  
10월  
26일  
오늘 7시 30분

▲ 趙英吉 (62)  
한국대학원대 교수  
逝世 12월 5일  
해남회관에서 차를

멸종동  
세했다.  
자택에서  
黃道婆는  
성군현대총장, 「  
원회(圓會)」에  
통증(通證) 「  
한국법총장  
와 노동나수를  
▲ 馬點述 56  
母校獸醫大教授  
군이 任顧鄉 양학  
전 9 시 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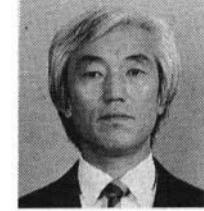
文理大卒。  
『장남鋪』  
1시  
オホ

시일  
오후 2  
종로구  
금황이로별

東洋製菓支會

창업이래 30여년동안  
「오리온」이라는 이름을  
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주준 회사입니다. 東洋製藥株式會社  
「人材育成・價値創出」  
와 「좋은제품 보다 많  
싸게」라는 경영이념  
실현하며 성장해온 동  
양제과는 연간 1천3  
백억 원 이상의 각종과  
자를 생산, 국내는 물론  
 oversea 市場에도 다량  
수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정약의 製藥會社

로  
밸류화하였다.  
우리나라 工業化的초  
기단계인 지난 195  
0년대중반 국내 전체  
공업 生산총 31%를 차  
지하는 織維工業에 이  
어 28%를 점하고 있  
었던 食品工業은 대부  
분 1차 가공製의 대체  
세상을 떠나 수수도영  
세기营业额로 난립된 상  
태였다. 이때 설립된 공  
업제과는 전한-하드비  
스킷-카라멜-웨이스등  
주생산품에 있어서 제  
일의 기술을 갖고 국내  
제제시장을 이끌어  
온 것이다.



◆林東俊전투

화를  
로써  
생산  
제품의  
화로  
이루었으며  
의 모리나가사, 英國의 스  
유나이티드비스킷사, 세  
위스의 슈너드사 등  
제과회사들과 기  
술제휴계약을 체결·선  
진제조기술 및  
시로 활용함으로써  
국화도 함께 이 제



◇沈勇燮간사장

루제  
이밖에도 금변하는 소  
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美國 뉴욕에 코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오리온  
프리토레이는 스웨덴분 회사로서 큰 호평을 얻고 있다.  
는 서울대 재직하고 있  
두 21명으로 가족은 모  
신부서의 일을 달아在  
학때부터 길러온 역량  
을 폼쳐보이고 있다.  
調和와 圓結力으로 말  
은바 일부를 출판히 하수  
행하고 있는 門들의  
활약상을 보면 林東俊  
(農大·연구소전부)·盧  
必圭(農大·생산담당부  
사장)·安清圭(農大·  
생산담당부)·權文宅  
(農大·생산부부장)·  
沈勇燮(農大·마케팅부  
부장·支部幹事長)·姜  
炳錫(農大·스낵생산부  
부장)·徐富榮(師大·  
마케팅부 과장)·朴承宰  
(工大·관리부 차장)·吳  
日鑄(商大·O.F.L.마

구소장장)·諸俊侯(商大·영업부차장)·安秉洙(農大·연구소)·池清煥(農大·구매부대리)·金興載(農大·마케팅부대리)·崔成洛(農大·스낵연구소)·朴鐘燮(農大·연구소)·黃奉雲(農大·연구소)·支部總務(農大·연구소)·柳殷奎(農大·연구소)·동문동적지망은 인원이 同社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部活動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이기지 않는다고. 沈勇善간사장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눌으로서 부서간 업무협조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회사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둘째하지는 않지만 실있는 모임을 자주 가로등 밤마다 한층 밝힐 전진 계획이라 고를 막힌다. 갈

보임

探 訪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서쪽에 舍春苑  
옛터가 일주 남아 있다.  
이곳에는 비명으로 간  
思憲世子의 묘소인 重  
思廟가 영조38년(17  
62)에 만들어졌으며  
정조8년(1784)에  
이것이 景慕宮으로  
칭쳐졌다고 한다. 그 당시  
건물들은 6·25사  
변에 불타 없어지고 정  
舍春門과 建物遺  
문인 舎春門  
趾가 일부 북쪽 남아 있다.  
問題研究所 건물이  
드스코프 있음을 허하게  
이트 뒤에 컴퓨터에는  
코트 한면이 자리잡은 테니  
홀 바닥에 놓여 있다.



◎第三輯

설되었다. 그 당시  
柱宗正、馬根、根、亞大汗、  
申東黨의 대장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배려와 협조로 교지를  
의 체령종진과 보건향  
상을 도모하고자 이정  
구장이 마련된 것이다.  
우리가 전장을 유지하  
며 보다 나은 教育 및  
研究와 社會活動에 공  
헌하고자 모이기 염그제  
시작 같은

로는 林應極, 趙允成, 金致善, 韓國順, 金基換  
교수들과 金光燭 교수를 생각하는 한자까지 주준  
하고 연성진인 회원이 있다. 이 중에  
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  
만 애석한 것은 우리  
회원중에 유명을 달리  
하게 된 申東薰, 朴和白  
하나면 아직도 설구치던  
모습들이 눈앞에 선연  
하게 떠오른다. 이 기회

季과장이 거리를  
이면 차운을  
우리 지역의 대주말  
집에서 살 경제  
코트에 나와서 회  
월들에 학교를  
하게 큰 것을  
설것을 보는 것을  
지루어 들자마자  
특히 13년간 꾸준  
매일 준비하고  
온 金鑄一씨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실히 감  
사하게 되었다.  
여긴다.

신 없이 고나면 두어 저임금  
나를 애 담이 속  
아고 생기가 몽초를  
치며 절을 되찾는  
神氣가 청신하지  
로운 불기운을 온몸에  
다시 풀게 되는 것 같다.  
우리 테니스 회의  
表는 출우간사이다.  
재총무간사  
교수는 이번에 韓大  
월봉에 우리 회  
年을 맞이하게  
된다.  
교수는  
내가 처음으로  
讀科수와

월급다면  
그러나 나도  
관없이 이런 것과는  
월급을 엄제가는 둘의  
아이 하겠다고 둘의  
직해보니 물으로 죽어보  
되다. 우리 풀이  
회월급이 天壽를 이 채마다  
때까지 계속 이 우리 죽어보  
에서 테니스를 죽여보니  
건강을 유지할수 있게 죽여보니  
되기를 항상 祈願한다.

母核 고수 중심 7년 봄에 빌혹  
離務 벗어나 라켓들면 生氣 솟아

「그럼인데 장간사이에 세  
월이 흘러 어느덧 1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

를 빌어 그부들의 명  
별이 많았다.  
원만하고 능숙하여 양  
보실 말씀은 趙允成 교수  
는 중학교 시절부터 시  
작해서 구려이 가 장오  
래도 있고 우리 회원들  
에게 쪘시에 청렴한 조  
언을 베풀어서 기량을  
진정 계속 많은 도움  
을 주고 있다. 그 끝  
분에 우리 회원들의 정  
구치는 솜씨가 거의 평  
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  
다. 林應燭 교수는 70을

절정안 강의와  
동 학생지도 연구 활  
에 시달리던 및 잡  
현듯 모든 일을 나는 복  
남기둔채 舒春苑 테니  
스코트를 향해 달려나  
간다. 라켓을 힘껏 휘두르며  
찰공에 솟구쳐올라  
날아오는 공을 계속으로  
시하여 저쪽 시킬 때때로  
팅! 텅! 텅! 라켓을 치는  
동소리가 삼쾌하게 여울을  
넘기면서 코트를  
앞에 훌쩍져 나간다.  
기운이 내키는대로

含春泰尼人會

出退勤길 즐거움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는 일은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적·인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학습하고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 개인적인 성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학교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학교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 대한 존경심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다. 출근길에 산책하  
아주 아내와 함께 하여  
학교까지 걸기도 하여  
서 더러는 교수휴게실  
에서 「글을 좋은 부부상」  
같으로 동학암아 저룬

는 배기 가스 냄새가 우  
리가 타고 있던 버스  
안으로 왔다. 후  
리가 지글 지글 톡  
풀에 쿠를 들어 밀  
고 있는 풀이 아닙니다.  
까? 하고 내가 또  
말문을 열었다.  
제는 자연스럽게 대기  
농약 중독의 문제로 이  
여겼다. 퇴근 버스가  
관



李炳漢  
(56년 文理大卒  
母校人文大 収集)

요지인즉 대체연안 공  
장지대에서 내뿜는 연  
기로 오염된 공기가 쉽  
게 통증으로 우리나라  
를 향하여 날아오게 되  
어 있다는 것이었다. 「조  
서황조록」에 중국의  
매우 기가 하늘을 뒤덮  
을 만큼 날아와서 그때  
마다 우리나라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듯이  
른바 「蠶書」 기사가 실

이날 최근 버스안에서  
우리들의 대화였고  
10분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사이에 우리는  
문화·과학·정치 그리고 주제에 관한  
체사설등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둘째로 토론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우리가 학교수리를 고려할 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우리가 학교수리를 고려할 때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화한 내용은

슬퍼하지요? 그 의정이  
너로 살고 산을  
여려면 싫어 삼리를  
만큼 아닙니까?  
우선 머리에  
커놓고 보아야  
나가고 말 할 비참  
되니 버스가 전에 그 꽃  
멀어 나기도 교문  
끌끌니에서 밤에 산아

이구 청춘에 이어  
을, 그에게서 대자전고 았  
었던 화학과 교수가 네  
쪽으로 예술을 놀리면  
서 그들이 절대 화려한  
우리가 꿈을 떠나게 되  
어 있으니"라고 그  
별도 말을 한다. 중문  
학교 교수로서 듣기 가 좀  
거북스러운 점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만  
말들이

여지고 데를로 모래로 현상이 우리 는 터이다. 그려니 해안 꽝장지대 개발에 추진에 우리 가 살피 한 발언권을 활 사할수 있어야 되는 것 이며, 이를 통해

나는  
둘리준  
표정이다  
이제 곧  
버스가  
무료위에  
올려놓았  
가방을 추스리며자  
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다가 “어디 세월이 빠  
른 것인가요?” 세월은  
흘러가는 흘러가는데 그  
빠르다고 세월을 보고  
무념하는 우

우선 옛글에서 한토  
막 벗을 한 사또가 있  
었다 한가한 어울들이  
었다 東軒에 앉아서 이  
런 일 저리를 일을 생각하  
고 있는데 일정 나루의  
아워새가 하니 를 들어 날  
아들어왔다 사 또는 그  
앞사귀를 보고 생각했  
다.  
『이제의 제제도 아  
닌데... 그리고 이근처  
에는 은행나루가 있는  
것도 못보았는지... 이  
상한 일이군...』  
吏房을 끌렸다.  
『이 근처에 은행나  
루가 있나?』  
근방에는 없습  
니다』  
『그런데 저것은 분  
명히 은행나루의 일새  
가 아닌가? 주어 오  
제』  
『여, 사도께서 알ا보겠습  
니다』  
東軒에서 실리총  
어진 곳에 총 빼어 하나  
있는데 그걸 뒤집어 넣고  
커다란 운행나루 한기

名譽教授칼럼  
銀杏

# 銀杏나무 잎사



張德順  
(前母校人文大四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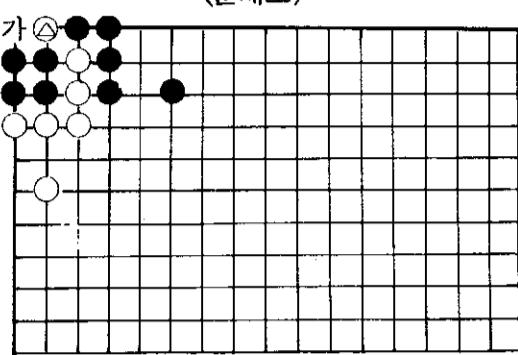
는 강릉이 노예에게는  
노란 운동장을 찾았고  
에 풀어서 굽게 간직  
하기도 했었다. 마치 그  
학생들을처럼 말이다.  
나는 母校 文理大에  
학생생활을 보냈고,  
또 장면시절을 그립  
퍼스에서 교수로 보냈  
다. 東莞 洞  
은행나무 있는 마로니에와  
같이 말이다. 그곳  
모두 마로니에나 같은  
트리가 있다.

나의 恩師들이 한분  
은『하고 諸師들이 개  
나리가 式면 개장을 하  
고, 郡司의 이전에 門  
어질 雖然 朝請한다』  
라고 하신 봉이 계셨  
지같은 他界하셨지  
만 나도 50대가지니 東  
련 崇洞 慶歲(시대) 있을때  
恩師의 며을 부리기도 했  
이나 지금의 冠岳께서  
스에선 이 며이 통하

수  
밀은  
마치 활터의  
갈아놓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주저 않았다.  
마침 제자 하나가  
지나다가 「선생고!」  
장간 기다리신시요 하니  
고책 가방을 내 옆에  
던지고 밖으로 나가버  
린다. 한참 있다가 그  
학생은 수주 한병과  
점어 한마리를 들고왔다.  
우리는 솔을 마쳤다.

東崇시절 은행으로 찬란한 追憶  
冠岳은 雜木만 무성 운치없어

## 朝飯과 건강관리



## 룰의 수수께끼 ①

바둑은 지구상에서 가장 공정한 게임이고 심판이 필요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묘하기 그지없는 바둑은 풀길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지니고 있고 지금 이순간에도 연구와 대립으로 바둑계의 한쪽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가장 초보적인 예의 하나가 <문제도>다. 이 그림에서 黑은 「가」로 때려내도 환객에 걸려 白◎로 되집힌다. 그러므로 白은 바둑이 걸났을 때 이 黑 닉점을 그냥 들어내고 싶고 그경우 白 집은 9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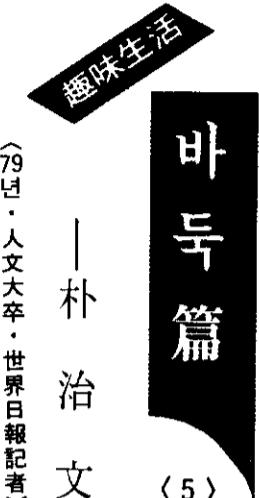
그러나 黑은 『그게 무슨 말인가, 공  
배가 비었는데 돌을 어찌 들어내는가,  
돌을 놓고 짐아가라』고 주장한다. 현대  
<1도>처럼 白이 ◇에 두어 黑 4 점을  
들어내면 黑 1로 되어서 白두점이 죽  
는다. 黑 1은 석집 크기이므로 이렇게  
되니 白은 이곳에서 겨우 1집이득을  
본것밖에는 없다.

그러자 白이 항변한다. 『왜 白이 먼저 두는가, 黑이 먼저 두게하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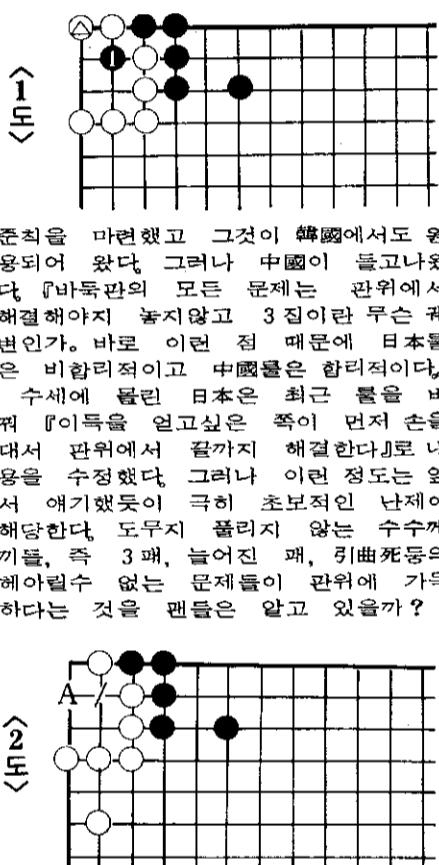
래서 문제도 「가」의 곳을 黑이 먼저 두고 白이 ⑧로 되돌라면 〈2도〉의 모습이 된다. 이 경우 白은 이미 얻은 4집이 이득에서 黑 1로 잡히는 1집을 공제해도 3집을 얻고 있다. 또 A의 패를 이길 경우 이곳에서 얻는 이득은 총 8집에 달한다.

가장 먼저 바둑룰을 제정했던 日本 棋院은 〈문제도〉의 경우에 골치가 아

파지자 「놓지않고 白 3집」이란 희한한



文 <5>



健康교실

洪文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게 수  
있겠다.  
한다고  
자기도 그  
렇게  
말리야 한다는 건  
강별이  
없다.  
가령  
식사만 하더라  
도 하루  
세끼가 좋은  
두끼가 좋은가 또  
는 조밥은 먹는 것이  
좋은가 먹지  
않는지도

시하여 자기 면에 '脫社會的'이 면대로 하 편하게 되어 피차에 불 편하게 된다. 그려이로 뇌지 는다면 문제만 뇌지 않 라가는 데로 것이 모든 뇌지 않게 된다. 뇌지 않게 된다.

죽어가는 노인을 보아 생  
활의 허망함을 느끼고  
이기 때문에 꽃을 놓고  
것이야 뒤다는 데에  
없다. 그러나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생활시간과는  
사회성이 더 가치로 상  
식 보내는 힘으로 되어  
어 있다. 끝다.  
기 꽃을 놓고

이제 쓰고 있는 펠  
자신 조밀도 떠고, 정  
실도 떠고, 하루 3식을  
하고 있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점심을 빼  
면서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다. 나가 많아  
조반파 저녁은 빼  
지 않는다면, 식사  
설정을 이어가는  
것이 자연이다.

과정에서 예너지 대사 를 활성시키고, 체온을 한 다. SDA 작용이 가장 강한 것이 단백질이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밥을 먹어서 잡아 깨고 활력이 생길려면 단백질 식품이 되겠다. 좋겠다는 결론이 되겠다. 그래서 조밥을

리에 의하여 축진된다.  
거리는 고장신례를  
금하는 장물에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시면 머리가 깨어지고  
일에 대한 진중함이 생  
기는데,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옥자도 마찬  
한 가지인 것을  
워도 있다.  
비단 조판부단 애구  
라. 지속하여 면접  
적인 두뇌의 신체로

老境엔 少食하는 습관 길러야  
過飲 過食 過色은 삼가해야

이	습관적 우울증 상태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
A)	○습관적 우울증 상태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
B)	○습관적 우울증 상태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
C)	○습관적 우울증 상태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
D)	○습관적 우울증 상태에 대한 치료에 대한 효과

을  
것이  
마이면  
도리에  
들어  
줄들이  
있단다.  
또한  
가지는  
영부터  
胡桃(화이)  
健腦식으로  
삼아  
왔는데  
아니게  
아니라  
단단한  
지방질이  
풍부하고  
비타민B<sub>1</sub>이  
많아  
피로  
복에도  
좋아므로  
쌀가루를  
같이  
와서  
아서  
제로서  
단단한  
단단한  
처음에  
화이  
생들을  
먹으면  
에  
도움이  
된다.

— [View all posts](#) | [View all categories](#)

年會費  
내주신분

( ) 理事會 8월 30일 10월 5일까지

※ 人名밑의 팔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齡이

理  
事

◆ 法科大學

金昌圭  
유학회부회장  
金顯喆  
금아동장(주)  
사장  
朴載春  
서울산업대  
학교수

원장	金泰鏞(61)	국회의원
부	金海山(64)	우편사업대
사장	朴相天(60)	효성화산(주)

대표이사  
李昌浩(李昌浩)  
업주대표이사  
張永壽(張永壽)  
(주)대우사장  
崔元甲(崔元甲)  
최신률(최신률)  
산(산)

행고문  
趙永植 50  
경희대총장  
총무처기획  
관리실장  
黃秉仁 58

郭厚燮  
사장  
金洛升  
교교장  
류데캐도

金尙淳(金尙淳)  
숙명여대교

교장  
金永數  
회장  
文祥得  
대학장  
아주대인문  
대한살학부

李順植  
서울대교수  
대학장  
서울대가정  
서울사대교

## ◆文理科大學

林漢洙 60  
회대학장  
崔根茂 55  
전주교대교  
许陽九 55  
전지대장

李正夏  
연구위원  
李正煥  
사장  
세종연구소  
정교윤석주  
副所長  
趙炳夏  
52

洪範基 ⑥) 서울시교위  
장학사

◆ 美術大學  
韓萬運◎ 案汝植◎  
국회의원  
인하대학교

리이사  
金正基  
전주지점장  
羅雄培  
국회의원  
吳元慶  
동광봉상(주)

會費남부에 뜨거운 精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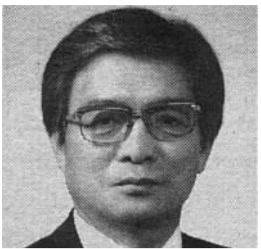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납한 분이 많습니다. 母校 발전과 동창회의活性化에 도움을 주시는 뜻으로 여기시고 未納동문께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一會書上題

- |         |       |          |
|---------|-------|----------|
| • 一般會員  | ..... | 1만원      |
| • 理 事   | ..... | 5만원      |
| • 常任理事  | ..... | 10~20 만원 |
| • 監 事   | ..... | 30 만원    |
| • 副 會 長 | ..... | 50 만원    |
| • 會 長   | ..... | 100 만원   |

卷之三

◇人文大學  
▲강인석  
▲권기숙  
▲박진우



丘仁煥

▲54년 師大卒·同大學院卒 ▲現母校 師大 교수 ▲60년 「동굴주변」으로 登壇 ▲代表作으로 「山頂의 神話」「님구는 自畫像」「壁에 감한 絶叫」〈矣鬱 결혼식〉長篇으로 「움트는 雪屋」「일어서는 山」등 多數 있음.

『나에서 종이 말의 세월  
하던』  
『龜頭山的紙馬時代』 헌자

# 엇갈리는 거리

〈上〉

내사기를 빙그다.  
빌그다. 졸랐으면  
정말 쾌적한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걸 무공에도 시요 수출의 도시니 하며 장관설을 틀어놓으니 모두 맥이 빠질수밖에 없었다. 「세상을 혼자 사는게 아 닌가」로 「한귀로 습치면 되는 거 고」 「또 한귀는 어떻게 하 그건 애초에 안들이면서

『그럼 또 무어가 없겠지』  
『있지만 하자』  
『제발 그 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지』  
『또 무신하를 하라고 그  
리는지야』  
『당 왜 있다니에요?』  
『없단 말도 봐 끊이』  
『제 무정하고 랄말이니  
다고』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야 처녀가 아기를 배  
어도 할 말이 있다니에요』  
『그지야 끊으려 하지』  
『뭐가 끊으려 하니지?』  
『그 저니에 말로 끊으려 말  
이 있을까요?』

고『民』과『民』이면『부민회』  
『봉사』는 아그니까『민족민  
라구』『정체』 달지. 꿩기가 떠나  
이자아』『어서』『설쳤 마자보라구』  
시죽은 페페 차들이 나  
려는 것을 얹지도 참았다.  
차는 미끄러지듯이 산립에  
걸물면서 걸을었다. 시내  
동산이 노락재과  
물을 죄어 수놓고 있었던  
오르는 산립의 일정한 부  
수를 찾고자 노란 물을  
물들여가고 있었다.  
『어嗟』 산립도 가파르  
지『산립에는 역사가 있고  
중립 토성들이 있으니 도역 사가  
있이마. 산립을 遷이마』  
였단다 했이고 그때

가렸다.  
폭포의 하얀 물줄기  
한군에 떠졌다.  
넘는 폭포는 이 금모양  
폭포의 살희 터였다.  
랑입니다. 그 대밭에 있는  
구미의 힘찬 광경은 바로  
구미의 열어나는 옛기  
비슷합니다. 아침에 풀을  
많이 머리를 쟁쟁이 쌓았던  
폭포는 쟁하는 소리와 함께  
천의 벼랑에 소리와 함께  
있었다. 위에서 소리와 함께  
아래로 구름처럼 흐르는  
이 리와 물방울에 운통  
같이 그 물방울을 흘려내는  
지는 물방울에 운통  
었다. 그 물방울을 흘려내는  
것이 그치고 범계를  
나哺는 듯한 운통  
시인이 먼저 걸단하고 앉아  
『서간 나이아가라의 일부를  
『제주의 절발록』에 보다

그 친구 말대로  
해가 빛나면 그  
대도시의 친척인  
비해 제대로 불어 가는  
로수나 노란 일출을  
걸 염증하고 싶었다.  
『서선생 어때?』  
열두 살이 꽃피는  
제일 표장으로  
『들도 들도 없이 무흔한  
야』  
【최하연】 삼천리 무는수  
리양 【신현미가】 악구 구름의  
면 무정체】 【연자설리】 신호들이 나에게  
보금구 【여기 누가 숨이 고인가  
기라도 하나】 아서도 살아보려구  
【금발하고】 사람의 좀 솔  
【죽어보려 이지】 【없기는 아 그려】  
【여기로 이끌려】 노를 떠

로 말하는 뜻이』  
『그전 광우리를 해한  
두리에 지나지 않느냐』  
기는 산으로『**모두라니**, 문화인이  
『자아 나루랄 가꾼다는데』  
진 몇 사람이 케이블카를 탔  
다. 산 중턱까지 올라간  
고 했다. 9백 7미터의 산  
정에는 内城과 外城이  
고 바위처럼 세워 놓았던  
시작되어 일진해 래도  
재우장군이 크게 싸운곳이었다.  
라고 했다.  
【**망이** 봐야 하는데】  
아직 9 시 전이었다  
이를 카는 9시부터라고  
있어 특별로 태워주는  
이었다. 문인들이 72명  
되어 타버리면 두어번에  
될수가 없었다. 한 절 세 쌍에  
【저것봐요 저기】  
시임이 손을 가리키며 말

